

소피텔, 기업 문화 창조 임직원 워크숍

소피텔 앰버서더는 최근 충남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변화 실현 의식 확립(The Change Monster and Commitment to Change)”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개관 50주년을 맞이하여
‘소피텔 기업문화 창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호텔은
GCT Services와의
공동 작업 진행으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변화 실현 의식 확립’이라는
주제로 임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본 워크숍은 2005년으로 개관 50주년을 맞이하는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이 새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5월 착수한 ‘소피텔 기업문화 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피텔 기업문화 창조 프로젝트는 진단, 개발 및 개선, 실행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및 인사 관리 전문 컨설팅 에이전시 ‘GCT Services’와의 공동 작업 진행 중이며 현재 2단계인 ‘개발 및 개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에 진행된 임직원 워크숍은 ‘발전의 단계와 변화의 이해 정도, 직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팀웍’을 주제로 삼았다. 워크숍기간 동안 현재 소피텔의 위치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컨설팅 에이전시 GCT Services의 마크 패턴 이사의 진행으로 ‘The Change of Monster’와 ‘12 Angry Men’을 주 교재로 토론과 발표형식의 그룹 활동으로 이뤄졌다.

본 워크숍에는 호텔 경영주인 앰버서더 그룹 서정호 회장과 더글러스 바버 총지배인을 포함하여 호텔 임원 및 부사장, 주요부서 매니저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특히,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의 총지배인 더글러스 바버씨는 워크숍 말미에 그 동안 자신의 시행착오 및 경영방식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점을 자인했다. 또 자신이 먼저 변화에 앞장설 것을 모든 참석 임직원 앞에서 천명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은 각자의 포지션으로 돌아가 직원 하나 하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소피텔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월간 호텔&레스토랑 12월호